

學校保健教育에 對한 學生, 一般教師, 養護教師의
態度 및 實踐分析

金 祉 柱*

A Study on the Attitude and Practice of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Nurses with Regard to
Health Education

Ji Joo Kim

Abstract

For the evaluation of health instruction by school nurses on the regular schedule of 6 hours per week from March to December 1987, this study of the three groups of respondents in 919 teachers, 2133 students, and 548 school nurses regarding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on health education was conducted by survey method during december 1987.

The majority of respondents in teachers, students, school nurses studied definitely favored the health instruction by school nurses. Respondents in teach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favor of health education than the respondents in students.

The evidence from the data analysis respondent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health in general after health instruction by school nurses than before.

*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

I. 結 論

1970년대 世界保健機構는 “2000년까지 人의 健康”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一次保健醫療를 제시하였다. 一次保健醫療의 배경이 되는 哲學은 “人間的 尊嚴과 平等”이다. 즉 人間은 尊嚴하고 平等하므로, 모두 똑같이, 최대한으로 健康하게 살 權利를 기니며 이것은 곧 健康이 人間的 基本權이며, 人間은 保健醫療 앞에서 平等하다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自由企業型 保健醫療 傳達體系를 運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哲學을 기초로 保健醫療事業을 전개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 문제들의 元천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國民의 保健醫療에 대한 無知이다.

自由企業型 保健醫療 傳達體系 내에서, 國民은 自身の 健康을 保護하고, 삶을 유지시키 나가기 위해서, 保健醫療商品들을 消費하면서 生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保健醫療의 消費者인 國民은 保健醫療商品에 대한 知識이 거의 없는 狀態이므로 적절한 商品을 選擇, 消費, 評價할 能力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保健醫療 生産者인 保健醫療 專門家들에게 일임한다. 이 때, 醫療를 企業으로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保健醫療 專門家들은 이러한 國民들의 無知가 그들에게 더욱 더 큰 이익을 불러오므로, 保健醫療 消費者인 國民의 知識不足을 깨우치려는 노력을 外面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醫療의 聖域化를 가져오고 결국 醫療는 基本權이 아닌, 가진자만을 위한 特權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健康을 國民의 基本權으로 保障해, 모두에게 平等한 保健醫療를 供給해 주기 위해서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努力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이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學校保健, 좀 더 범위를 축소시킨다면 學校保健教育이다. 즉, 學校保健教育이 國民들에게, 保健醫療商品에 대한 知識을 전달하여, 그들 스스로 健康權을 保障받을 수 있도록

목, 自己保護能力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學校保健教育의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學校保健教育은 初·中·高等學校 교과서의 몇몇 과목에 健康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켜, 保健教育의 目的과는 별개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醫療를 消費하는 能力 培養이, 家具를 選擇하고, 야채를 選擇하는 能力 培養보다 人間의 삶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學校保健教育은 이를 外面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保健教育이 지속된다면, 人間의 健康權 保障은 遙遠하기만 하나고 할 수 있겠다.

學校保健은 國民의 健康權 保障을 위한 礎石이다. 이는 곧 學校保健이 發展되지 않으면, 國民의 健康은 保障받을 수 없다는 意味이다. 그러므로 保健教育이 學校教育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學生의 保健醫療 消費能力은 물론, 自己健康 管理能力을 향상시켜, 國民 모두가 健康權을 保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本 研究은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가 學校保健 活性化方案('87.1.28)의 일환으로 '87學年度부터 施行한 養護教師에 의한 주당 6시간의 保健教育을 '87.3부터 '87.12까지 實施한 結果를 分析함으로써 學校保健教育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本 研究의 具體的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學校級別 學生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을 분석한다.
2. 學校級別 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을 분석한다.
3. 學校級別 養護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을 분석한다.
4. 學校級別 學生, 教師, 養護教師 間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을 비교, 분석한다.

II. 研究方法

1. 研究 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特別市 初·中·高等學校의 學生 2,133명, 一般教師 919명, 養護

教師 548명이다.

學生과 一般教師는 教育區廳의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한 國民學校 4 개교, 中學校 4 개교, 男子高等學校 4 개교, 女子高等學校 4 개교에서 추출되었는데, 이들 中 國民學校는 4·5·6 學年 學生을 中·高等學校는 1·2 學年 學生을 研究對象으로 하였으며, 一般教師는 교장, 교감, 양호교사를 제외한 전원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또 養護教師는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 管内 初中·高等學校에서 근무하는 920 명 中 548 명을 本 研究의 對象으로 삼았다. 初·中·高 別 本 研究對象 分布는 다음과 같다.

〈표 1〉 학교급별 연구대상 분포

區 分		學 生 실 수(%)	一般教師 실 수(%)	養護教師 실 수(%)
학교 급별	국민학교	659(30.9)	215(23.4)	266(48.6)
	중 학교	571(26.8)	273(29.7)	152(27.7)
	고등학교	903(42.3)	431(46.9)	130(23.7)
계		2,133(100.0)	919(100.0)	548(100.0)

2. 調査方法 및 期間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에 관련된 설문을, 學生用, 教師用, 養護教師用으로 區分 作成, 이것을 각 學校에 보내 무기명으로 記載한 후 각자 教育委員會로 보내도록 하여, 研究 對象者의 개인적인 의견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調査期間은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가 실시한 養護教師에 의한 주당 6시간의 정기적인 保健教育이 대체적으로 끝나는 1987년 12월 14부터 18일까지였다.

3. 資料 處理

수집된 설문지는 學校級別을 독립변수로, 態度 및 實踐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되었다. 또한 態度 및 實踐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1점은 설문에 반대한다. 2점은 그저그렇다.(보통이다), 3점은 동의한다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독립변수간의 차를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Ⅲ. 研究 結果

1987년 3월부터, 養護教師에 의해서 실시된 주당 6시간의 保健教育의 실체를 把握하고자, 學生, 一般教師, 養護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을 분석하였다.

1. 學生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

(1) 學生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保健教育의 必要性에 대한 學生의 態度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0.7%가 必要하다는 대답을 했고, 이를 學校級別로 보면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國民學校와 中學校 學生의 경우는, 必要하다고 대답한 學生의 수가 전체의 84.0%, 88.1%로 각각 높게 나타난 반면, 高等學校의 경우 50.0%만이 必要하다고 대답했고, 34.4%의 學生은 保健教育이 必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P < 0.01$)이라는 國民學校, 中學校의 경우가 高等學校의 경우보다 保健教育에 접할 시간적 여유가 많고, 또 실제로 保健教育을 실시하는 사례가 더 많을 수 있어, 保健教育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學校級別로 學生들이 保健教育에 興味를 느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國民學校, 中學校 學生의 경우, 興味가 있었다는 대답이 각각 59.9%, 47.8%였고, 高等學校 學生의 경우는

〈표 2〉 학생들이 인식한 보건교육 필요성 정도

필요정도 학교급별	필요하다 실 수(%)	그 그렇다 실 수(%)	필요하지 않다 실 수(%)	계 실 수(%)
국민학교	554 (84.0)	71 (10.8)	34 (5.2)	659 (100.0)
중 학교	503 (88.1)	664 (11.2)	64 (0.7)	571 (100.0)
고등학교	451 (50.0)	141 (15.6)	310 (34.4)	902 (100.0)
계	1,508 (70.7)	276 (13.0)	348 (16.3)	2,132 (100.0)

$$X^2 = 421.704 \quad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 1

28.5%에 불과했다.($P < 0.01$) 이는 高等學校에서 실시하는 保健教育의 내용이, 學生들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혹은, 高等學校의 경우에, 保健教育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학생들의 보건교육 흥미정도

흥미정도 학교급별	흥 미 있 었 다 실수(%)	그 저 그 렇 다 실수(%)	흥 미 없 었 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394 (59.9)	228 (34.6)	36 (5.5)	658 (100.0)
중 학교	273 (47.8)	277 (48.5)	21 (3.7)	571 (100.0)
고등학교	257 (28.5)	387 (43.0)	257 (28.8)	991 (100.0)
계	924 (43.4)	892 (41.9)	314 (14.7)	2,130 (100.0)

$X^2 = 309.11$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 3

〈표 4〉는 保健教育 후에 學校保健行事に 대한 學生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전체 學生의 61.7%가 學校保健行事が 중요하다는 대답을 해주었다.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경우 중요하다고 대답한 학생이 78.7%, 78.2%로 높게 나타난

〈표 4〉 학생들의 보건교육 후 학교보건
행사 관심도

중요성인식 정도 학교급별	중요하다 실수(%)	그 저 그 렇 다 실수(%)	중 요 하 지 않 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517 (78.7)	88 (13.4)	52 (7.9)	657 (100.0)
중 학교	444 (78.2)	115 (20.2)	9 (1.6)	568 (100.0)
고등학교	353 (39.0)	278 (30.8)	273 (30.2)	904 (100.0)
계	1,314 (61.7)	481 (22.6)	334 (15.7)	2,129 (100.0)

$X^2 = 404.42$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 4

반면, 高等學校 學生은 전체의 39.0%만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學生도 30.2%를 차지하고 있다.($P < 0.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保健教育內容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學生들의 견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4.3%가 적합하였다는 대답을 하였고, 보통이었다가 43.3%, 적합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12.4%로 나타났다. 이를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경우, 적합하였다고 대답한 學生의 수가 56.0%, 54.6%로, 전체 대상자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高等學校 學生의 경우는 29.1%만이 적합하였다는 대답을 했다.($P < 0.01$)

〈표 5〉 보건교육내용의 적합 정도

적합정도 학교급별	적 합 했 다 실수(%)	보 통 이 었 다 실수(%)	적 합 하 지 않 았 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369 (56.0)	251 (38.1)	39 (5.9)	659 (100.0)
중 학교	311 (54.6)	236 (41.5)	22 (3.9)	569 (100.0)
고등학교	262 (29.1)	435 (48.3)	203 (22.6)	900 (100.0)
계	942 (44.3)	922 (43.3)	264 (12.4)	2,128 (100.0)

$X^2 = 224.85$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 = 5

保健教育 이후 養護室을 이용하고 싶었느냐는 설문에서는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58.8%가 그저그렇다는 반응으로 가장 높았고, 이용하고 싶다는 학생이 그다음으로 27.0%를 차지했으며,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學生도 14.2%였다.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P < 0.01$)

(2) 學生의 保健教育에 대한 實踐

保健教育이 學生들의 日常生活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學生들의 態度는 〈표 7〉에서와 같이, 전체의 54.6%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이 결과는 保健教育內容이 學生들에게

〈 표 6 〉 학생들의 보건교육후 양호실이용에 대한 관심정도

양호실이용태도 학교급별	이용하고 싶다 실수(%)	그저 그렇다 실수(%)	이용하고 싶지 않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275 (41.8)	351 (50.2)	53 (8.0)	659 (100.0)
중 학교	116 (20.4)	371 (65.1)	83 (14.5)	570 (100.0)
고등학교	184 (20.4)	551 (61.2)	166 (18.4)	901 (100.0)
계	575 (27.0)	1,253 (58.8)	302 (14.2)	2,130 (100.0)

$X^2 = 122.10$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 3

〈 표 7 〉 보건교육의 일상생활 도움정도

도움정도 학교급별	도움이 되었다 실수(%)	그저 그렇다 실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462 (70.3)	147 (22.4)	46 (7.3)	657 (100.0)
중 학교	370 (64.9)	177 (31.1)	23 (4.0)	570 (100.0)
고등학교	331 (36.7)	381 (42.2)	190 (21.1)	902 (100.0)
계	1,163 (54.6)	705 (33.1)	261 (12.3)	2,129 (100.0)

$X^2 = 242.27$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4

적합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 中學校 學生들은, 각각 70.3%, 64.9%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반면 高等學校 學生은 36.7%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으며, 그저 그렇다가 42.2%,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대답도 전체의 21.1%를 차지하였다. ($P < 0.01$)

保健教育을 받은 후, 이에 따라 實踐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8.9%만이 實踐하였다고 하였으며 약간 實踐하였다가 60.0%, 實踐하지 않았다가 21.1%로 實踐程度는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참조)

學校級別로는 實踐하였다는 學生이 國民學校는 18.6%, 中學校는 13.2%인 반면 高等學校가 22.7%로 약간 높았다. ($P < 0.01$)

保健教育이 健康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을 한 學生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39.9%로 나타났고, 이를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 學生의 경우, 56.6%의 學生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여 中學校 39.2%, 高等學校 25.7%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01$) 또 高等學生의 경우, 전체의 21.8%의 學生이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표 8 〉 보건교육의 실천정도

실천정도 학교급별	실천 하였다 실수(%)	약간 실천 하였다 실수(%)	실천하지 않았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122 (18.6)	407 (61.9)	128 (19.5)	657 (100.0)
중 학교	75 (13.2)	373 (65.3)	123 (21.5)	571 (100.0)
고등학교	206 (22.7)	498 (55.2)	200 (22.1)	903 (100.0)
계	402 (18.9)	1,278 (60.0)	451 (21.1)	2,131 (100.0)

$X^2 = 26.62$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2

〈 표 9 〉 학교급별 보건교육의 건강향상에 도움정도

도움정도 학교급별	도움이 된다 실수(%)	보통이다 실수(%)	도움이 안된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372 (56.6)	235 (35.8)	50 (7.6)	657 (100.0)
중 학교	222 (39.2)	293 (51.8)	51 (9.0)	566 (100.0)
고등학교	232 (25.7)	473 (52.5)	197 (21.8)	902 (100.0)
계	826 (38.9)	1,001 (47.1)	298 (14.0)	2,125 (100.0)

$X^2 = 191.09$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8

〈 표 15 〉 학교급별 보건교육이 정규교육과정
에 지장이 없는 정도

학교급별	정규교육과정 에 지장여부	지장없다 실수(%)	그 저 렇 다 실수(%)	지 장 다 실수(%)	계 실수(%)
국 민 학 교		163 (78.1)	33 (15.4)	14 (6.5)	215 (100.0)
중 학 교		195 (71.7)	56 (20.6)	21 (7.7)	272 (100.0)
고 등 학 교		276 (65.4)	108 (25.6)	38 (9.0)	422 (100.0)
계		539 (70.3)	197 (21.7)	73 (8.0)	909 (100.0)

$X^2 = 19.36$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10

에 지장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 표 16 〉은 養護教師가 保健教育을 함으로써 養護室 이용에 지장이 있었느냐는 질문으로 전체 교사의 62.9%가 지장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들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 教師의 59.5%, 中學校, 高等學校 教師들 각각 59.9%, 66.4%가 지장이 없다고 대답해 學校級別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P > 0.05$)

保健教育 內容이 학생들에게 適合한지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는, 〈 표 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교사의 59.8%가 보통이라고 대답

〈 표 16 〉 학교급별 보건교육으로 인한 양호실
이용의 지장정도

학교급별	양호실이용에 지장여부	지장없다 실수(%)	그 저 렇 다 실수(%)	지 장 다 실수(%)	계 실수(%)
국 민 학 교		128 (59.5)	51 (23.7)	36 (16.8)	215 (100.0)
중 학 교		163 (59.9)	76 (27.9)	33 (12.2)	272 (100.0)
고 등 학 교		283 (66.4)	93 (21.8)	50 (11.8)	442 (100.0)
계		574 (62.9)	220 (24.1)	119 (13.0)	933 (100.0)

$X^2 = 10.67$ $P < 0.05$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6.

〈 표 17 〉 학생들이 본 보건교육 내용의
적합성 정도

학교급별	적합성	적합하다 실수(%)	보통이다 실수(%)	적합하지 않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 민 학 교		72 (33.5)	128 (61.0)	14 (6.5)	0 (0.0)	215 (100.0)
중 학 교		57 (20.9)	166 (60.8)	44 (16.1)	6 (2.2)	273 (100.0)
고 등 학 교		92 (21.3)	255 (59.2)	69 (16.0)	15 (3.5)	431 (100.0)
계		221 (24.1)	550 (59.8)	127 (13.8)	21 (2.3)	919 (100.0)

$X^2 = 28.95$ $P < 0.01$

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適合하다라는 反應으로 24.1%, 適合하지 않다는 대답이 13.8% 순이었다. 또한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教師들의 59.8%가 보통이라고 대답하되 가장 높았으며, 國民學校 教師의 33.5%, 中學校, 高等學校 教師들의 20.9%, 21.3%가 適合하다고 대답하여서 약간 낮았다 ($P < 0.01$)

〈 표 18 〉에서는 保健教育後 學生의 學校保健行事的 關心度에 대한 교사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순위별로 보면 높아졌다는 대답이 전체의 63.9%, 전과 같다는 의견이 32.2%였고,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의 경우 높아졌다는 대답이 79.6%, 中學校는 62.3%, 高等學校는 57.1%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표 18 〉 학교급별 보건교육후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들의 보건행사에 대한 관심
정도

학교급별	학생의 관심도	높아졌다 실수(%)	전과같다 실수(%)	낮아졌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 민 학 교		171 (79.6)	40 (18.6)	2 (0.9)	2 (0.9)	215 (100.0)
중 학 교		170 (62.3)	95 (34.8)	2 (0.7)	6 (2.2)	273 (100.0)
고 등 학 교		246 (57.1)	161 (37.4)	7 (1.6)	17 (3.9)	431 (100.0)
계		587 (63.9)	296 (32.2)	11 (1.2)	7 (2.7)	919 (100.0)

$X^2 = 34.40$ $P < 0.01$

保健教育 후 學父母의 學校保健行事に 대한 關心 정도는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教師의 51.3%가 전과같다라고 대답하였고, 높아졌다고 대답한 教師의 비율은 44.6%이었다.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의 경우는 높아졌다고 대답한 교사가 60.0%로 中學校 44.7%, 高等學校 36.9%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1)

다음은 教師의 學校保健行事に 대한 關心度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20>을 살펴보면 關心이 높아졌다는 대답이 전체의 51.3%로 가장 높았으며 전과 같다는 대답이 45.4%이었다. 이를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는 73.9%의 教師가 높아졌다고 대답한 반면 中學校, 高等學校는 각각 48.7%, 41.5%로 國民學校보다 낮게 나타났다(P < 0.01)

保健教育이 教師들에게 必要한지에 대한 教師들의 見解는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教師의 66.1%가 必要하다라고 대답을 하

<표 19> 학교급별 보건교육 후 학부모의 학교보건행사에 대한 관심정도

학교급별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졌다 실수(%)	전과같다 실수(%)	낮아졌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129 (60.0)	83 (38.6)	1 (0.5)	2 (0.9)	215 (100.0)
중학교		122 (44.7)	139 (50.9)	4 (1.5)	8 (2.9)	273 (100.0)
고등학교		159 (36.9)	249 (57.8)	6 (1.4)	17 (3.9)	431 (100.0)
계		410 (44.6)	471 (51.3)	11 (1.2)	27 (2.9)	919 (100.0)

$X^2 = 33.16 \quad P < 0.01$

<표 20> 교사들의 보건행사에 대한 관심정도

학교급별	교사의 관심도	높아졌다 실수(%)	전과같다 실수(%)	낮아졌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159 (73.9)	54 (25.1)	1 (0.5)	1 (0.5)	215 (100.0)
중학교		133 (48.7)	130 (47.6)	2 (0.7)	8 (3.0)	273 (100.0)
고등학교		179 (41.5)	233 (54.1)	4 (0.9)	15 (3.5)	431 (100.0)
계		471 (51.3)	417 (45.4)	7 (0.7)	24 (2.6)	919 (100.0)

$X^2 = 64.04 \quad P < 0.01$

<표 21> 학교급별 교직원들의 보건교육 필요성

학교급별	교직원의 보건교육 필요성			계 실수(%)
	필요하다 실수(%)	그저 그렇다 실수(%)	필요없다 실수(%)	
국민학교	162 (75.7)	42 (19.5)	10 (4.7)	214 (100.0)
중학교	178 (65.7)	68 (25.1)	25 (9.2)	271 (100.0)
고등학교	261 (61.5)	113 (26.7)	50 (11.8)	424 (100.0)
계	601 (66.1)	223 (24.5)	85 (9.4)	909 (100.0)

$X^2 = 19.14 \quad P < 0.0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10.

였고,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 教師의 75.7%가 教育이 必要하다라고 대답하여 中學校, 高等學校 65.7%, 61.5%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1)

(2) 一般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實踐

保健教育 실시에 따른 실천율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었다가 62.8%, 높다가 28.0%, 낮다는 6.5%의 순위로 나타났다,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 36.3%, 中學校 24.6%, 高等學校 26.0%로 實踐하였다고 하여 保健教育의 관심에 비하여 그 實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實踐 후 도움이 되었는지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教師가 50.8%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하였고, 보통이었다가 42.8%이

<표 22> 학교급별 보건교육실시 후 건강생활 실천율

학교급별	건강생활 실천율	높다 실수(%)	보통이다 실수(%)	낮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78 (36.3)	134 (62.3)	3 (1.4)	0 (0.0)	215 (100.0)
중학교		67 (24.6)	180 (65.9)	21 (7.7)	5 (1.8)	273 (100.0)
고등학교		112 (26.0)	263 (61.0)	36 (8.4)	20 (4.6)	431 (100.0)
계		257 (28.0)	577 (62.8)	60 (6.5)	25 (2.7)	919 (100.0)

$X^2 = 31.63 \quad P < 0.01$

〈표 23〉 학교급별 보건교육이 건강증진에 도움정도

학교급별	건강증진에 도움여부	도움이 되었다 실수(%)	보통이다 실수(%)	도움이 않되었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113 (52.6)	98 (45.6)	3 (1.4)	1 (0.4)	215 (100.0)
중학교		137 (50.2)	122 (44.7)	9 (3.3)	5 (1.8)	273 (100.0)
고등학교		217 (50.4)	173 (40.1)	25 (5.8)	16 (3.7)	431 (100.0)
계		467 (50.8)	393 (42.8)	37 (4.0)	22 (2.4)	919 (100.0)

$X^2 = 15.75 \quad P > 0.01$

었다.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教師들의 52.6%, 50.2%, 50.4% 로 별차이 없이 나타났다 ($P > 0.01$)

(3) 一般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의 평균

一般教師들의 養護教師에 의하여 실시된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표 24〉와 같다. 養護教師가 주당 6시간 保健教育을 실시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에 支障이 없었는지에 대한 一般教師들의 態度는 初·中·高 각각 2.7, 2.6, 2.5로 나타나 學校 정규교육과정에 支障이 없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學生들의 養護室 利用에도 支障이 없었다고 대답하는 教師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나 學生들에게 실시한 保健教育 內容이 적합 하나는 질문에는 初·中·高 각각 2.2, 2.0, 1.9로, 특히 高等學校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學生, 教師들의 保健教育에 대한 必要性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그 實踐이나 전달 정도가 낮은 이유가 內容선정이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3. 養護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
(1) 養護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保健教育이 學校教育에서 學生에게 必要한지에 대한 養護教師의 態度는 〈표 2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의 91.4%가 必要하다고 하였고,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 養護教師의 90.2%, 中學校, 高等學校의 92.0%, 93.0%가 保健教育이 必要하다고 대답하여 學校級別로 차이없이 전반적으로 保健教育의 必要性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표 25〉는 保健教育후 教師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41.8%의 養護教師가 만족하다고 대답한 반면 불만이라고 대답한 것은 전체의 0.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學校級別로는 國民學校의 경우 교사역할이 만족하다는 意見이 49.2%로 中學校, 高等學校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01$)

保健教育이 養護室 業務에 지장이 있는지에

〈표 24〉 일반교사들이 인식한 보건교육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정규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정도		양호실이용에 지장이 없는 정도		학생들에게 적합정도		학생에게 필요정도		교직원에게 필요정도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국민학교	2,716	0.579	2,428	0.763	2,270	0.573	2,935	0.299	2,726	0.591
중학교	2,640	0.622	2,478	0.703	2,049	0.614	2,927	0.288	2,565	0.657
고등학교	2,510	0.744	2,517	0.743	1,984	0.717	2,847	0.467	2,457	0.761

구 분	교사가 본 학교보건행사에 대한 관심도 변화강도						건강생활에 실천강도		건강증진에 도움정도	
	학 생		학 부 모		교 사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국민학교	2,793	0.428	2,601	0.500	2,762	0.489	2,349	0.506	2,514	0.528
중학교	2,629	0.499	2,445	0.527	2,494	0.516	2,172	0.548	2,478	0.564
고등학교	2,476	0.721	2,276	0.682	2,336	0.672	2,084	0.723	2,371	0.757

〈 표 24-2 〉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양호교사태도

필요성 여부 학교급별	필요하다 실수 (%)	그저그렇다 실수 (%)	필요없다 실수 (%)	계 실수(%)
국민학교	240 (90.2)	24 (9.0)	2 (0.8)	266 (100.0)
중 학교	138 (92.0)	9 (6.0)	3 (2.0)	150 (100.0)
고등학교	120 (93.0)	9 (7.0)	0 (0.0)	129 (100.0)
계	498 (91.4)	42 (7.7)	5 (0.9)	545 (100.0)

$X^2 = 6.42$ $P > 0.05$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3.

〈 표 25 〉 보건교육후 교사역할에 대한 만족 정도

만족정도 학교급별	만족하다 실수(%)	전 만족가 다 실수 (%)	과 만족이다 실수 (%)	불만족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131 (49.2)	134 (50.4)	1 (0.4)	0 (0.0)	0 (0.0)	266 (100.0)
중 학교	51 (33.6)	94 (61.8)	3 (2.0)	4 (2.6)	0 (0.0)	152 (100.0)
고등학교	47 (36.1)	72 (55.4)	0 (0.0)	11 (8.5)	0 (0.0)	130 (100.0)
계	229 (41.8)	300 (54.8)	4 (0.7)	15 (2.7)	0 (0.0)	548 (100.0)

$X^2 = 36.80$ $P < 0.01$

〈 표 26 〉 보건교육의 양호실 업무지장 정도

지장여부 학교급별	지 장 이 다 실수(%)	그 저 그 렇 다 실수 (%)	지 장 이 다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62 (23.4)	74 (27.9)	129 (48.7)	265 (100.0)
중 학교	36 (24.0)	43 (28.7)	71 (47.3)	150 (100.0)
고등학교	40 (31.7)	32 (25.4)	54 (42.9)	126 (100.0)
계	138 (25.0)	149 (27.5)	254 (47.0)	541 (100.0)

$X^2 = 8.44$ $P > 0.05$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s 7.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 표 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養護教師의 47.0 %가 지장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저 그렇다가 27.5 %, 지장이 없다가 25.5 %이었다.

〈 표 27 〉은 保健教育后 一般教師가 養護教師에 대한 協助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42.7 %가 전보다 協助的이었다라고 대답하였고, 學校級別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國民學校의 경우는 57.5 %가 전보다 協助를 잘한다고 대답한 반면 中學校, 高等學校는 각각 30.3 %, 26.9 %로 낮게 나타났다. 〈 표 14 〉에서 본 바와 같이 一般教師들의 90 % 이상이 保健教育이 必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협조가 더욱 잘 될 것으로 본다.

〈 표 28 〉은 教育后 學生과의 關係를 알아본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83.0 %가 좋아졌다고 하

〈 표 27 〉 보건교육후 보건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의 협조정도

교사들의 협조정도 학교수준	좋아졌다 실수(%)	전 만족가 다 실수 (%)	과 만족이다 실수 (%)	나빠졌다 실수 (%)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153 (57.5)	113 (42.5)	0 (0.0)	0 (0.0)	0 (0.0)	266 (100.0)
중 학교	46 (30.3)	99 (65.1)	3 (2.0)	4 (2.6)	0 (0.0)	152 (100.0)
고등학교	35 (26.9)	72 (63.1)	3 (2.3)	10 (7.7)	0 (0.0)	130 (100.0)
계	234 (42.7)	294 (53.6)	6 (1.1)	14 (2.6)	0 (0.0)	548 (100.0)

$X^2 = 65.79$ $P < 0.01$

〈 표 28 〉 보건교육후 양호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정도

학생과의 관계 학교급별	좋아졌다 실수 (%)	전 만족가 다 실수 (%)	과 만족이다 실수 (%)	나빠졌다 실수 (%)	무응답 실수(%)	계 실수 (%)
국민학교	237 (89.1)	29 (10.9)	0 (0.0)	0 (0.0)	0 (0.0)	266 (100.0)
중 학교	121 (79.6)	23 (15.1)	3 (2.0)	5 (3.3)	0 (0.0)	152 (100.0)
고등학교	97 (74.6)	24 (18.5)	1 (0.8)	8 (6.1)	0 (0.0)	130 (100.0)
계	455 (83.0)	76 (13.9)	4 (0.7)	13 (2.4)	0 (0.0)	548 (100.0)

$X^2 = 26.19$ $P < 0.01$

였고, 이를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 養護教師들의 89.1%, 中學校, 高等學校 養護教師들의 각각 79.6%, 74.6%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 표 29 >에서는 養護教師가 保健教育으로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適當 시간수를 나타낸 것으로 순위별로는 6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시간, 4시간 순이었다. 學校級別로 차이 없이 6시간이 가장 適當하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평균 시간수를 보면 國民學校는 약 5시간, 5시간, 高等學校는 약 5시간으로 나타났다.

< 표 30 >은 養護教師가 중시하는 教育內容

< 표 29 > 주당 적당한 보건교육

시간수	국민학교 실수(%)	중학교 실수(%)	고등학교 실수(%)	계 실수(%)
1 시간	11 (4.1)	9 (5.9)	16 (12.3)	36 (6.6)
2 시간	25 (9.4)	11 (7.2)	10 (7.7)	46 (8.4)
3 시간	48 (18.1)	11 (7.2)	13 (10.0)	72 (13.1)
4 시간	55 (20.7)	18 (1.9)	7 (5.4)	80 (14.6)
5 간	51 (19.2)	24 (15.8)	10 (7.7)	85 (15.5)
6 시간	69 (25.9)	50 (32.9)	54 (41.6)	173 (31.6)
7 시간	0 (0.0)	0 (0.0)	1 (0.7)	1 (0.1)
8 시간	1 (0.4)	3 (2.0)	2 (1.5)	6 (1.1)
9 시간	0 (0.0)	0 (0.0)	0 (0.0)	0 (0.0)
10 시간	3 (1.1)	14 (9.2)	7 (5.4)	24 (4.4)
무 응답	3 (1.1)	12 (7.9)	10 (7.7)	25 (4.6)
계	266 (100.0)	152 (100.0)	130 (100.0)	548 (100.0)
Mean	4,304	5,186	4,800	
S.D	4,604	2,398	2,465	

을 순위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양호교사의 57.8%가 家族健康과 性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感染과 免疫, 保健, 知識, 安全과 應急處置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學校級別로도 같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2 養護教師의 保健教育 實施

< 표 31 >에서는 保健教育을 實施할 때 強化해야 하는 教育方法을 나타낸 것으로 그 순위를 보면 첫째는 視聽覺 教育資料 開發이 전체 양호교사의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教材開發 實習強化의 순이다. 이는 學校級別로도 같은 樣相이었는데 이는 保健教育의 특

< 표 30 > 양호교사가 중시하는 보건교육내용의 백분율

보건교육내용	단위 :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가족건강과성	62.0	55.9	51.5	57.8
감염과면역	61.7	42.1	43.8	52.0
보건지식	48.1	45.4	41.5	45.8
안전과응급처치	22.9	31.6	28.5	26.6
구강보건	34.2	13.8	8.5	22.4
정신적·정서적건강과 생활	4.1	15.1	28.5	13.0
기분이양	1.1	18.4	29.2	12.6
체육과건강	6.0	12.5	23.1	11.9
양양과건강	10.5	9.2	10.8	10.2
보기·듣기·말하기	3.4	8.6	10.8	6.6
만성퇴행성질환	5.3	2.6	10.8	5.8
피부간호	1.9	3.3	1.5	2.2

< 표 31 > 보건교육방법요구분포

교육방법	단위 :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시청자교육자료개발	45.9	53.9	50.0	49.1
교재개발	41.0	26.3	30.8	34.5
실습강화	7.1	3.3	6.2	5.8
질의·응답식교육	3.0	0.7	2.3	2.2
그룹별토의	1.1	2.0	3.8	2.0
평가(시험)	1.1	1.3	2.3	1.5

性으로 理論에 對한 講義보다는 視聽覺 資料의 사용으로 教育的 效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 教材開發이 34.5%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실제 養護教師가 保健教育을 實施할 수 있는 共通된 교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 표 32 >에서는 保健教育 實施時 문제점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35.4%가 教材 不足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그 다음은 保健教育에 割當된 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學校級別로 보면 國民學校의 경우 教材 不足이 전체의 48.9%, 정규시간의 배당이 12.8%, 養護室 業務에 지장이 된다가 12.0%로 나타났지만 中學校, 高等學校의 경우는 정규시간 배당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의 23.0%, 42.3%로 國民學校와 차이를 보인 것은 中·高等學校로 올라갈수록 進學위수의 교육을 중시, 保健教育이 소홀히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 표 32 > 양호교사가 보건교육 시행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백분율

학교급별 보건교육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재 부족	48.9	21.7	23.8	35.4
정규시간의 배당	12.8	13.0	42.3	22.6
양호실업무에 지장	12.0	4.6	13.8	10.4
수업의 연계성 부족	18.6	11.2	10.0	9.7
타교사의 인식 부족	9.0	12.5	6.2	9.3
교수학습경험 부족	11.3	3.3	6.2	7.8
학생들의 인식 부족	1.1	10.5	14.6	6.9

< 표 33 >은 保健教育後 學生들의 養護室 이용의 變化를 나타낸 것으로 전보다 늘었다고 대답한 養護教師數는 전체의 54.4%이었고 전과 다름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5.0%로 나타났다. 學校級別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國民學校의 경우에 전보다 늘었다는 대답이 59.4%로 中學校, 高等學校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P < 0.01$).

또한 保健教育이 養護教師 자신의 專門能力

< 표 33 > 보건교육후 학생의 양호실이용 변화

이용률 학교급별	전보다 늘었다 실수(%)	전 마찬가지 실수 (%)	전보다 줄었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158 (59.4)	100 (37.6)	7 (2.6)	1 (0.4)
중학교	71 (46.7)	71 (46.7)	6 (4.0)	4 (2.6)	152 (100.0)
고등학교	69 (53.1)	51 (39.2)	2 (1.5)	8 (6.2)	130 (100.0)
계	298 (51.4)	222 (40.5)	15 (2.7)	13 (2.4)	548 (100.0)

$$X^2 = 18.82 \quad P < 0.01$$

< 표 34 > 양호교사가 본 보건교육의 전문 능력개발 도움정도

능력개발에 도움여부 학교급별	도움이 없다 실수(%)	전 마찬가지 실수 (%)	도움이 있다 실수(%)	무응답 실수(%)	계 실수(%)
	국민학교	208 (78.2)	51 (19.2)	6 (2.2)	1 (0.4)
중학교	121 (79.6)	20 (13.2)	9 (5.9)	2 (1.3)	152 (100.0)
고등학교	110 (84.6)	13 (10.0)	3 (2.3)	4 (3.1)	130 (100.0)
계	439 (80.1)	84 (15.3)	18 (3.3)	7 (1.3)	548 (100.0)

$$X^2 = 15.33 \quad P > 0.01$$

開發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 표 3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養護教師의 80.1%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學校級別로 보았을 때 初·中·高 養護教師 모두에 차이없이 ($P > 0.01$)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養護教師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의 평균

< 표 35 >는 養護教師들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것으로 初·中·高의 養護教師 각각 2.8, 2.9, 2.9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保健教育이 전문능력개발, 一般教師들의 保健에 대한 협조를 긍정적으로 이끈 반면 養護室 業務에 支障이 되느냐의 질문에 初·中·高 각각 1.7, 1.7, 1.8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표 35 >

양호교사의 보건교육에 대한 태도 및 실천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필요성정도		양호실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		교사위치확보 정도		교사들의 협조 정도		학생과의 관계		전문능력개발에의 도움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국	민	2,895	0.331	1,747	0.812	2,489	0.508	2,575	0.495	2.891	0.312	2,762	0.477
중	학	2,900	0.362	1,767	0.814	2,324	0.511	2,291	0.498	2.803	0.448	2,747	0.588
고	등	2,930	0.256	1,889	0.860	2,395	0.491	2,267	0.498	2,787	0.431	2,849	0.421

IV. 結 論

1987年 3月부터 12月까지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가 처음으로 시도한 初·中·高等學校의 정기적인 保健教育을 분석하고자 서울市에 位置하고 있는 初·中·高等學校 學生 2,133名, 一般教師 919名, 그리고 養護教師 548名을 대상으로 養護教師에 대한 態度 및 實踐을 연구 정리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렸다.

1. 學生들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 保健教育의 必要性에 對한 調査에서는 전체 70%가 必要하다고 대답하였으며 學校級別로도 차이없이 높게 나타났다. 保健教育 前, 後의 흥미정도를 比較해 본 結果 前에는 전체 43.4%가 흥미있다고 대답하였으며 後에는 전체 61.7%가 흥미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保健教育으로 保健에 대한 흥미정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選擇級別로 보면 國民學校 學生은 59.9%에서 78.7%로, 中學校 學生은 47.8%에서 78.2%로 흥미정도가 크게 變換되었음을 알 수 있어 保健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保健教育이 絶실히 要求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高等學校의 경우 28.5%에서 39.0%로 變化의 폭이 좁고 저조하게 나타나고 保健教育이 日常生活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 高等學校 學生의 21.1%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學校級別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변수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保健教育의 實踐 정도는 전체의 78.9%가 실천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學生들이 關心있는 教

育內容이 初·중·고 전체적으로는 感染과 免疫, 安全과 應急處置, 體育과 健康 순으로 나타났다. 學校級別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學生들에 대한 保健교육내용이 學校級別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一般教師들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 保健教育의 必要性에 대한 教師들의 態度는 전체 91.7%가 必要하다고 하여 學生들이 인식한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保健教育內容에 대한 적합성 정도는 전체 24.1%가 適合하다고 하였으며, 보통이다가 59.8%로 나타났으며 學校級別로도 차이없이 나타났다. 또한 教師를 위한 保健教育이 必要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66.1%가 必要하다고 하였으며, 學校級別로는 初 75.7%, 中 65.7%, 高 61.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保健教育後 教師들의 保健行事に 대한 관심 정도는 전체 51.3%이며, 學校級別로는 初 73.9%, 中 48.7%, 高 41.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養護教師들의 保健教育에 대한 態度 및 實踐 保健教育에 대한 必要性도 初·中·高 教師들 각각 90.2%, 92%, 93%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질문에서 學生, 教師, 養護教師들의 반응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保健教育으로 學生들과 教師들과의 關係가 좋아졌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養護教師가 保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당 6시간 前後라고 응답하였으며 保健교육내용으로 가족건강과 성, 感染과 免疫, 保健등이었다. 끝으로 學生과 一般教師, 養護教師 모두가 保健教育이 必要하고 教

育前, 後의 흥미정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이것이 직접 實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養護教師들은 學生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健康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現存하는 人力으로 保健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養護教師가 學校 保健教育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學校 保健教育을 해야하는 또하나의 이유로는 學生들이 각 가정과 지역사회의 保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식을 파급하는 중요한 전달자가 되므로써 養護教師에 의한 保健教育은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 교육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參 考 文 獻

1. 김화중 : 학교보건과 간호, 수문사, 1984.
2. 김명호 : 보건교육, 수문사, 1985.
3. Coutts, L.C. : Teaching for health, Churchill Livingston, London, 1985.
4. Nash, W. : Health at school, Heinemann Nursing, London, 1985.
5. Richmond, J.B. : you and your health, Scott, Foresman and Company, Texas, 1981.
6. Nadar, P.R. : Options for School health, Aspen systems Corporation Corporation, Maryland, 1978.
7. 이수희 : 학교보건교육론, 교육출판사, 1981.